

현대로어에서 주어와 술어의 문법적조응

리 명 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국어문법을 잘 모르면 외국어문장을 정확히 리해할수 없으며 번역도 잘할수 없습니다. 단어의 뜻만 알고 그것을 어림짐작으로 엮어서 하는 번역은 정확할수 없습니다.》

로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속에서 주성분들의 조응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데로부터 문장구성에서 일련의 오류를 범하고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로어문장에서 주어와 술어의 문법적조응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현대로어에서 주성분들인 주어와 술어의 문법적조응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명사 большинство, меньшинство, множество, большая часть 등은 단수의 문법적형태를 가지고있지만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많은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술어가 단수형태뿐아니라 복수형태로 조응되는것을 볼수 있다.

지난 시기 문법전문가들속에서는 이런 경우 정확한 술어형태를 단수로 여겼으나 실천적으로는 사무문체와 정론체, 입말체에서 의미에 따라 일치시키는 현상이 매우 우세하였다.

례: ① Большинство согласилось с оратором.

(대다수가 연설자의 말에 동의하였다.)

② Большинство авторов согласилось с замечаниями.

(절대다수의 필자들이 의견에 동의하였다.)

③ Большинство писателей ре-

шительно отвергали его редактора. (절대다수의 작가들이 그 수정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④ Большинство авторов, заключивших договоры с издательством, представили рукописи.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한 절대다수의 필자들은 원고를 제출하였다.)

⑤ Большинство авторов, заключив договор, работают над рукописями. (절대다수의 필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쓰고있다.)

⑥ Большинство редакторов, корректоров, авторов, рецензентов изучили эти документы. (대부분의 편집원들과 기자, 필자, 평론가들이 이 문건들을 연구하였다.)

⑦ Большинство редакторов получили приказ,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его содержанием и сделали необходимые. (대부분의 편집원들이 지시를 받고 그 내용을 알아보고 필요한것들을 하였다.)

우의 레문들에서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의 술어들은 단수형태로 쓰였다. 만일 이 문장들의 술어들을 복수로 바꾸는 경우 거기에 회화적색체를 더해지게 된다. 세번째 문장에서 복수로 쓰인 술어는 행동의 적극적인 특성을 지적한다. 이때 주어로 표현된 명사가 활동체인 경우 아래의 실례에서처럼 술어는 복수형태로, 비활동체인 경우에는 단수형태로 조응되는것이 더 합리적이다.

례: Большинство студентов хорошо

отвечали на семинаре.

(학파토론회에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잘 대답하였다.)

Большинство предметов лежало в беспорядке.

(대부분의 물건들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다.)

네번째 문장과 다섯번째 문장에서처럼 주성분들이 일정한 공간을 두고 배열되는 경우 특히 주어가 형동사구나 부동사구로 술어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있는 경우와 여섯번째 문장과 일곱번째 문장에서처럼 주어나 술어가 동종성분으로 령거되어있는 경우 문체적으로 술어는 복수형태로 쓰이게 된다.

언어행위의 의미적측면에서 볼 때 만일 술어가 많은 사람들이 진행하는 행동을 지적하는 경우와 술어가 명명적단어인 경우에도 복수형태로 표현될수 있다.

레: Большин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слета встретились впервые.

(대부분의 회의참가자들은 처음으로 만났다.)

Большинство приехавших были ветераны.

(타곳에서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병들이었다.)

다음으로 주어가 《수사+명사》결합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도 술어의 문법적조응이 이루어지는것을 볼수 있다.

지난 시기의 문학작품들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쓰인것을 볼수 있다.

레: Какие-то три солдата стояли рядом у самого спуска и молчали.

(어떤 세명의 병사가 옆에 있는 바로 내리막길곁에 서있었으며 말없이 있었다.)

В душе его боролись два чувства - добра и зла.

(그의 마음속에서는 선과 악의 두 감

정이 싸우고있었다.)

우의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동사 боролись와 주어로 쓰인 활동체명사 три солдата는 복수형태의 선택을 암시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동사와는 달리 존재, 참가, 출석 등을 의미하는 동사들은 단수형태로 선택된다.

레: У него было два сын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На столе было три телефона. - Три телефона зазвонили одновременно. (책상우에는 석대의 전화기가 있었다. - 석대의 전화기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우의 실례에서와 같이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было는 단수에 놓고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동사 зазвонили는 복수형태에 놓이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들에서도 주어의 구성에서 쓰이는 수사의 특성도 술어의 수선택에 영향을 준다.

수사 два, три, четыре는 다른것들보다 자주 복수에 따르는 술어형태의 조응을 요구한다.

레: У сарая стояли три тройки.

(창고옆에는 석대의 삼두마차가 서있었다.)

За коляской бежало четыре пса.

(마차뒤를 따라 네마리의 개가 달리고있었다.)

그러나 보다 많은 량을 지적할수록 그것을 하나의 전일체로 리해하기가 쉬우며 따라서 술어는 단수형태를 가질수 있다.

이 경우에 단수형태의 술어는 성분화되지 않은 행동의 성격과 대상의 총체로서의 주체를 인식하며 복수형태의 술어는 반대로 행동수행에로의 각자의 개별적인 참가를 강조한다. 보다 많은 량을 나타내는 수사들이 쓰일 때 일반적으로 공식사무문체에서는 단수가 쓰이며 정론체에서는 단수

나 복수형태들이 다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성분화되지 않은 다수로 느끼게 되는 무게, 공간, 시간의 척도를 의미할 때 술어의 단수형태가 쓰이게 된다.

레: Прошло сто лет.

(100년이 지나갔다.)

До барьера осталось пять шагов.

(장애물까지는 다섯발자국이 남았다.)

수량이 만일 대략적인것을 의미하거나 только, лишь, всего로 강조된다면 술어는 단수에 놓인다.

레: За бугром лежало с десяток возчиков.

(언덕너머에 대략 10명의 마부들이 누워있었다.)

В кружок записалось всего пять человек.

(소조에는 다해서 5명이 등록되었다.)

Человек шесть справилось с заданием.

(6명정도가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주어가 미정수량수사 несколько, сколько, столько, много, мало, немного, немало와 함께 쓰이는 경우 술어형태와의 조응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레: Уже много карет проехало по этой дороге.

[벌써 많은 (용수철이 있는) 대형 4륜 유개마차가 이 길을 따라 지나갔다.]

Несколько пуль провизжало над моей головой.

(몇개의 탄알이 나의 머리위로 새된 소리를 내며 날아지나갔다.)

우의 실례에서처럼 주어가 미정수량수사와 함께 쓰일 때 술어가 단수형태에서 쓰일수 있으나 복수형태도 가능하게 된다. 이때 동사의 의미적무게가 강조되는것을 볼수 있으며 현시기 술어형태의 이러한 조응은 보다 더 널리 쓰이고있다.

다음으로 동종의 주어로 된 문장에서도 술어의 문법적조응을 볼수 있다.

레: Однажды Лебедь, Рак да Щука везти с поклажей воз взялись.

(어느날 백조와 가재, 강꼬치고기가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가려고 달라 붙었다.)

문학작품에서 나오는 우의 문장에서처럼 동종의 주어 Лебедь, Рак, Щука가 있는 경우 술어가 복수형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동종의 주어가 있지만 단수형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동종의 주어로 된 문장에서도 술어의 조응현상을 볼수 있다.

우선 만일 처음에 동종의 주어들이 렬거되고 술어가 그뒤에 직접 따른다면 술어가 복수형태를 취한다.

레: Гимназист и Саша всю дорогу плакали.

[중학생(철부지)과 싸샤는 길을 가는동안 줄곧 울었다.]

그러나 문장성분들의 다른 순차성에 의해서 술어의 수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레: Из района приехал следователь и врач.

(구역에서 예심원과 의사가 왔다.)

В комнате остались только хозяин, да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да Владимир Петрович. (방에는 다만 주인과 셰르게이 니콜라예위치, 올라 지미르 빼프로위치도 남았다.)

실례를 든 문장들에서 첫번째 문장에서 행동의 기본수행자가 следователь로서 술어는 단수에 놓이게 되며 두번째 문장에서는 행동의 발기자로서 그 어느 한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하여 술어는 복수형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만일 이때 동종의 주어가운데에 명사복수가 있으면 술어도 역시 그 형태와 일치시키게 된다.

레: Мои большие несчастья, мое тер-

тение тронули сердца обывателей.

(나의 큰 불행과 나의 참을성은 사람들의 심장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만일 술어의 가까이에 단수형태의 주어가 있고 또 그것이 규정어에 의하여 강조된다면 술어는 그 문법적형태를 취할수도 있다.

례: Несся тяжелый топот кованых сапог и крикливые бабы взвизги.
(징박은 장화의 무거운 발걸음소리와 수다스러운 아낙네들의 새된 소리가 울렸다.)

또한 주어의 성형태도 술어의 수형태선택에 영향을 준다.

례: Темницы мертвое молчанье ни стон, ни вздох не нарушал.
(신음소리도 한숨도 감옥의 고요한 침묵을 깨뜨리지 못했다.)

В спальне ... было темно и прохладно. ... Сюда не проникали ни свет, ни жара. (침실은 어둡고 선선하였다. ... 여기로는 빛도 무더위도 뚫고들어오지 못했다.)

우의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주어가 한가지 성으로 되어있는 경우 술어는 그 성의 단수형태를 취할수 있으며 주어가 여러가지 성으로 되어있는 경우 술어는 복수형태를 취하게 된다. 특히 주어가 각이한 성의 활동체명사로 표현되는 경우 술어는 반드시 복수형태를 가지게 된다.

례: Ни он, ни она ни слова не промолвили.

(그도 그 녀자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문체나 공식사무문체에서는 주어가 각이한 성으로 되어있는 경우 술어는 항상 복수형태에 있어야 한다.

례: Увеличиваются сила тока и напряжение — мощность тоже увеличивается.(전류와 전압의 세기

가 증가되고 출력도 역시 증가된다.)

다음으로 병렬접속사들도 술어의 수형태에 영향을 주는것을 볼수 있다.

동종의 주어가 분리접속사들에 의해 련결되고 행동을 한사람 또 다른 사람이 번갈아 수행하거나 가능한 몇명가운데서 그 어떤 한사람이 행동을 수행한다는것을 강조해야 한다면 술어는 단수형태로 쓰이게 된다.

례: То ли чурка, то ли бочка проплывает по реке.

(나무토막인지 나무통인지가 강을 따라 떠가고있다.)

Московский или Петербург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проведет эту конференцию. (모스크바나 뻬테르부르크 종합대학이 이 회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만일 각이한 성의 주어가 각이한 수로 되어있고 술어가 뒤위치에 있다면 술어는 복수형태를 취하게 된다.

례: То ли куст, то ли кочка виднелись вдали (...то ли кочки виднелись).
(떨기나무인지 작은 둔덕인지가 멀리서 보였다.)

대조접속사 как, так и를 쓸 때에도 복수형태를 가지게 된다.

례: Как тяжелая, так и лег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выполнили план.

(중공업뿐아니라 경공업도 계획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대립의 색채를 포함하는 접속사는 не только, но и; не столько, сколько 등이 쓰일 때에는 보통 단수형태의 술어를 가지게 된다.

례: Не только содержание рукописи, но и сама форма подачи материала требовала специального разговора. (원고의 내용뿐아니라 자료제출형태 자체가 전문적인 대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만일 주어가 대립접속사 а, но, да에 의하여 련결된다면 앞위치에 있는

술어는 첫번째 주어에 따라 자기의 형태를 조응시킨다.

례: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эма, а не стихотворение – Опубликовано стихотворение, а не поэма. – Опубликована не поэма, а стихотворение.
(시가 아니라 서사시가 발표되었다.
-서사시가 아니라 시가 발표되었다.
-서사시가 아니라 시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술어가 뒤위치에 있게 되면 술어의 형태는 주어들중에서 어느것이 술어의 가까이에 있는가에 관계없이 그것이 의미상으로 련결된 주어에 관계된다.

례: Стихотворение, а не поэма опубликовано в журнале.
(서사시가 아니라 시가 잡지에 발표되었다.)

Не стихотворение, не поэма, а роман опубликован в журнале.
(서사시, 시가 아니라 장편소설이 잡지에 발표되었다.)

이밖에도 술어의 수형태가 조응되는 경우를 더 찾아볼수 있다.

례: Жил старик со своею старухой у самого моря. (늙은이가 자기의 로친과 함께 바로 바다옆에서 살고 있었다.)

Через пять минут на опустевшей площади возле амбаров остались только Давыдов с Макаром.
(5분이 지나 텅 빈 광장의 곡물창고 곁에 다만 다비도브와 마까로브만이 남았다.)

우의 문장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첫번째 문장에서의 《전치사+명사결합》(со старухой)은 보어로서 행동의 수행자가 아니라 그와 동행하는 인물을 명명하는 명사로 되며 따라서 술어는 주어인 старик와만 조응되어 단수형태로 쓴다. 그러나 두번째 문장에서의 《전치사+명사결합》은 주어로

된다. 이때 술어의 복수형태는 행동에 두명의 인물이 동등하게 참가하며 때문에 술어형태의 조응은 의미구별의 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을 강조한다.

주성분의 문법적형태들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명사합성술어의 계사는 복수나 단수형태로 쓰일수 있다.

례: В свое время Тетюев был гроза и все заводы держал в ежовых рукавицах. (한때 켄쥬예브는 무서운 사람이었으며 모든 공장들을 엄하게 다루었다.)

Ее несбыточная мечта были гастроли.(그 녀자의 실현할수 없는 념원은 순회공연이었다.)

우의 문장들에서 첫번째 문장의 계사는 주어에 의해 일치되며 두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계사가 술어의 명사부에 의해 일치된다. 두번째 문장에서처럼 반대일치는 술어의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반대일치는 일부 경우들에 쓰이게 된다.

례: -주어가 단어 большинство와 같은 단어들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

Большинство артистов были студенты.

(대부분의 배우들은 대학생들이었다.)

-작가가 술어의 의미를 강조하려고 하는 경우

Первое, что бросилось в глаза Привалову, был какой-то господин, который сидел у стола...

(쁘리왈로브의 눈에 띄운 첫번째것은 책상옆에 앉아있던 웬 신사였다.)

-주어가 대명사 это로 표현되는 경우

Это был удар для меня.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타격이었다.)

대명사 кто가 접속어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문의 지시어와 일치하는 종속복합문에서도 술어는 문체적으로 다양하게 쓰

일수 있다.

례: Все, кто пришли на занятие, разобрались в этом сложном вопросе.

(강의를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은 이 복잡한 문제를 깊이 분석(해명)하였다.)

Те, кто знали о лекции, пришли послушать.(강의에 대해 알고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받으러 왔다.)

우의 문장들에서 부문의 술어의 복수형태는 부문에서 주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명사 кто에 관계되는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많은것을 의미하는 주문의 지시어 Все에 따른것이다. 이러한 조응은 서적체에서 더 많이 쓰이며 현대로어에서는 의미에 따르는 조응이 기본적인것으로 하여 문학작품들과 대중잡지들에서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술어의 복수형태가 주문의 주성분에 의한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구조는 회화적색체를 강조하기 위한것으로 된다.

례: Мы разыскиваем тех, кто в период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отеряли родителей, братьев.

(우리는 조국전쟁시기에 부모형제를 잃은 사람들을 찾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물음대명사 кто가 있는 문장에 명사합성술어가 있을 때 계사의 수형태는 전적으로 의미에 의하여 규정된다.

례: Кто был инициатором этой затеи? (이 생각을 발기한 사람이 누구요?)

Кто были инициаторами наших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우리의 체육수업을 발기한 사람이 누구요?)

이와 같이 주성분들의 문법적조응은 수사나 일부 많은 량을 표시하는 단어들, 주어와 술어의 위치 등 여러가지 조건들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우리는 로어문장에서 주성분들의 문법적조응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학생들이 로어문장들을 의미에 맞게 문체적으로 옳게 구성하며 정확히 번역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